

광주 시사관학교 참여 열기...전국서 러시

330명 모집에 전국 시·도 772명 도전장...수도권 161명 역량 테스트·인터뷰 등 거쳐 내달 11일 합격자 발표

광주시가 기업들이 원하는 최적의 실무형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사관학교는 광주시가 2019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 예타 면제 이후 실리콘밸리와 관교테크노밸리 등 국내외 선진모형을 참고해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결과, 인공지능산업은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2020년 7월 개교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입은 사관학교는 1기 155명, 2021년 2기 157명의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양성했다. 올해 3기는 현장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입학 정원을 330명으로 늘렸다.

3기 교육생은 330명 모집에 772명이 지원해 2.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2기 모집인원인 609명의 127% 수준으로 광주에서 458명이, 다른 지역에서 314명이 지원했다. 타 지역 지원 비율은 지난해 34.3%에서 40.7%로 눈에 띄게 증가했고, 수도권은 2기 78명에 비해 배 이상인 161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몰린 배경으로는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기업·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새로운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고, 새 정부에서도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키로 하는 등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자가 492명으로 63.7%, 여자는 280명으로 36.3%로 나타났다. 자격별로는 취·창업준비생이 568명으로 73.6%, 학생이 178명으로 23.1%, 스타트업 종사자가 26명이었다.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정보통신·전자·수학·통계

등 관련 분야가 434명으로 56.2%로 나타나 이공 계열의 관심이 높았다. 어문·디자인 등 인문·예체능 계열도 338명으로 43.8%를 차지해 인공지능 서비스나 사용자 경험(UX) 개발 쪽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모집 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다.

지원자들은 6월 7일까지 개인별 320시간의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기초역량테스트가 마무리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를 통해 6월 11일 최종 교육생 330명이 선발된다.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3개 트랙, 7개 마이크로 트랙으로 구분된 10개 반에 배치돼 6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관학교 교육장인 광주대학교 발당에서 교육과 프로젝트 과정을 각각 수강하게 된다. /김용범 기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공간 '탈바꿈'

공모 당선작 선정...이달 중 설계계약·12월 설계완료

국내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인 광산구 신가동 극락강역에 흉물로 방치된 현대시멘트 사일로가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9일 "극락강역 폐사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제이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폐사일로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위해 설계공모에 나섰다.

전시공간, 시민활동공간, 전망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설계공모전에는 8개 작품이 응모해 전문가 심사와 질의응답,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제이포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권현민 기자



사일로를 상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에다가 관람객 진입 동선과 오픈 전시 계획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구체적인 구조 보강 계획까지 제안한 점이 호평받았다.

심사과정은 광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됐다. 종합건설본부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생중계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5월 중 설계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권현민 기자

전두환씨 고향합천서 42년 만에 첫 5·18 기념식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 이름 붙여진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5·18 4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일해공원에서 5·18 기념식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9일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6시 일해공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과 일해공원 명칭변경 촉구 합천군민대회가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의 개요·의의를 알리는 발표와 연대사를 통한 민주열사 추모, 관련 영상물 상영과 함께 합천군수 예비후보들의 일해공원 명칭 변경 질의서 답변 내용도 공개된다. 합천군은 2004년 8월 도비 2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들여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을 개장했지만, 2007년 1월 '합천을 널리 알린다'는 이유로 해당 공원의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5·18민주화운동 42년 만에 전씨의 고향인 합천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사회의 부족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전씨 잔재의 청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창선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위원장은 "항상 역사 속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5·18 42주기를 맞아 일해공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기념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 울돌목 '명량대첩축제' 총감독, 양정웅 위촉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총연출...세계적 축제 육성 기대



전남도는 명량대첩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총연출인 양정웅 예술감독을 9일 총

감독으로 위촉했다. 양정웅 신임 총감독은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2022년 명량대첩축제를 기획, 지휘하게 된다.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명량대첩축제의 출정식, 해전 재현, 퍼레이드 등 메인 행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예술적 능력과 국제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양정웅 총감독은 서울 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전임 교수를 역임했다. /박종배 기자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아트엔터테인먼트(예술감독)로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을 총연출해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연극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 런던 바비칸센터, 세익스피어 글로벌 극장 초청공연 등 50여나라 15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이란 평가를 받았다. 양 총감독은 "역사적인 현장 울돌목에서 역사적인 사건인 명량대첩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최근 추세에 맞게 경쟁력 없는 콘텐츠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흥행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미래지향적 테마와 메시지로 탈바꿈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전남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공모 3개 확보

드론·바이오·수리조선 분야 기반구축...사업비 총 415억원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미래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드론·바이오·수리조선 분야 등 3개 사업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고도화,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확보한 사업은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실증 기반 구축(전남·부산·경남 협력) ▲디지털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전남·광주·충남 협력)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

원체계 구축이다. 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비 250억 원을 포함 총 415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의 양식장 및 불법어업 감시 ▲부산의 고가 시설물 감시 ▲경남의 저조 및 해양오염 감시 등 지역별로 특화된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교차 실증을 하는 것이다. '디지털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광주·충남이 연계해 각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폴리5차 배형민 총감독 선임



광주 도시에 건축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광주폴리 5차' 총감독에 배형민 교수가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제5차 광주폴리리를 이끌어갈 총감독에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배 총감독은 국내외 건축

관련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국제적인 감각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2011),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큐레이터(2014),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2017) 등을 맡았으며, 국내외에서 건축역사가, 비평가,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5·18 피해자 실태 첫 전수조사

11월까지 전국 피해자·유가족 5000여명 대상 설문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고통회복에 따라 생활과 건강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5·18민주화운동은 4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생계지원: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주거지원: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기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